

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발견의 기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미술사는 과연 완성된 이야기일까. 미처 주목받지 못한 작품과 작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술사의 빈자리를 찾아 메우고,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연결해온 배원정 학예연구사를 만났다.

정소나 기자 jung.sona@joongang.co.kr _ 사진 최기웅 기자

한국 미술계에서 학예사는 단순히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다. 흩어진 자료를 연결하고, 작품과 작가에 담긴 맥락을 다시 읽어내는 연구자이자 해석자다. 정승우 이사가 배원정 학예연구사를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 학예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근대미술과 한국화, 서예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미술관에 흠',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등을 기획하며 한국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해석해왔다. 특히 60여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장욱진의 대표작 <가족>을 일본에서 직접 찾아내 국내에 다시 소개하며 주목받았다.

그가 꾸준히 해온 일은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미처 조명받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 한국미술의 숨은 맥락을 다시 살피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에 가깝다.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의 시선은 오늘도 새로운 발견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

학예연구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나화랑 개관 10주년 기념전에서 인상과 회화를 보다가 모리스 드 블라맹크의 그림 앞에서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미술품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작정 경주에 있는 아트선재미술관을 찾아갔다. 미술관 안내 직원에게 큐레이터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마침 지나가던 큐레이터 한 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날 들은 말을 하

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내려고 애썼던 것 같다.

당시 “학부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후 역사학을 공부하고 외국어를 익혔으며, 경영학을 부전공하고 학보사 활동을 하며 학예사의 길을 준비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인데 지금도 참 재미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하다.

현재 미술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근대미술과 한국화, 서예 분야를 맡아 전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근현대회화사를 전공했고, 20세기 중국 공필채색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시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도록과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동시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동양화 전공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미술의 자료를 모으고 읽고 다시 배열해 동시대 관객 앞에 내놓는 일을 하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 학예사와 큐레이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갤러리는 작품을 사고파는 상업 공간이고, 미술관은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존해 공공에 전하는 비영리 공간이다.

갤러리 큐레이터가 동시대 미술의 현장을 다룬다면, 미술관 학예사는 작품을 미술사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한다. 같은 전시를 만들어도 출발점이 다르다.

갤러리는 지금을 보지만, 미술관은 더 긴 시간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본다. 나는 늘 후자의 시선으로 일하려고 한다.

정승우 이사와 배원정 학예연구사가 한국미술의 현재와 미래부터 공공미술관의 역할, 세계 미술시장에서 한국미술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 근현대미술과 서예의 현재를 어떻게 보는가.

단색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흐름이 한국미술의 전부처럼 비칠 때면, 오히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한국화와 서예는 저평가됐다가보다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미술사 서술에서 오랫동안 주변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야들은 당대에 분명 중심에 있었다. 한국화와 서예는 변방의 유산이 아니라 아직 펼쳐지지 않은 본류다. 내가 전시와 글을 통해 하고 싶은 일도 결국 여기에 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동시에 단색화 이후의 흐름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한 세대의 성취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아야 단색화 역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이자 개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빠진 자리를 메우는 일과 지금 만들어지는 흐름을 지켜보는 일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 열린 '미술관에 흠' 서예를 다시 보게 만든 상징적 전시로 꼽힌다. 전시를 기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다.

서예를 골동의 자리에서 미술관 안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옛 글씨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선과 여백, 속도와 호흡을 다루는 조형 언어로 소개하고 싶었다. 사실 서예의 획과 먹의 운용은 추상회화나 미니멀리즘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글자를 읽기보다 그 움직임과 기운을 바라본다면 서예는 충분히 동시대적인 장르가 될 수 있다. 어렵다는 인상도 장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전시에는 잊지 못할 사연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년 만에 처음 기획한 서예 단독전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개막조차 하지 못한 채 관람객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전시를 공개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전시를 본 대만의 한 시립미술관 큐레이터가 한국 유학생을 통해 직접 연락을 해왔다. 이 전시를 대만에 꼭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서예가 미술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동시대 언어로 충분히 소통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경을 넘어 전달된 셈이다. 그때 인연이 돼 2024년에는 처음으로 대만 초청을 받아 한국 근현대 서예가들을 대규모로 소개할 수 있었다.

관객 한 사람 맞지 못했던 전시가 바다를 건너간 것이



다. 그때 보여주는 방식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AI 시대에 미술관을 직접 찾는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손맛은 더 귀해진다. AI가 무엇이든 매끈하게 만들어내는 시대일수록 사람이 오랜 시간 손으로 쌓아 올린 흔적, 화면에 남은 붓의 떨림 같은 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것은 화면 너머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작품 앞에 섰을 때만 느껴지는 기운과 오라(Aura)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미술관이 앞으로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진짜 물질로 만들어진 작품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다.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원본 앞에서 서는 경험은 디지털이 촛촛해질수록 오히려 더 간절해질 것이다. 미술관을 찾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 본다.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은 학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표작 <가족>을 발굴해 '미술사 탐험가'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다.

과분한 평가다. 다만 장욱진에게서 내가 발견한 힘은 작게 그리면서도 더 깊어지는 데 있었다. 그는 누구나 아는 소재를 평생 반복하면서도 매번 더 단순하고 더 정직해졌다. 나는 그 정직함을 군더더기 없이 전달하고 싶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공감해주었다.

<가족>을 찾은 과정은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일본에 작품이 있다는 단서를 확인한 뒤 편지와 전화를 꾸준히 주고받으며 소장가와 신뢰를 쌓았다. 결국 직접 일본을 찾아갔는데, 오사가 근교의 낡은 벽장 안에서 나온 손바닥만 한 그림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단순히 전시를 위한 대역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소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발굴의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림 한 점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시간, 신뢰가 필요한지를 배웠다. 학예사의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깨달은 계기였다. **연구와 전시를 이어가는 학예연구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책임은 무엇인가.**

연구와 전시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 학예사는 기

본적으로 연구직이다.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전시는 이 벤트에 그칠 수 있다. 나는 전시가 글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연구는 작품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전시는 그 연구를 관객 앞에서 작품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그래서 둘은 애초에 분리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편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개막 10분 전이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연구가 깊을수록 전시는 더 정직해진다.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우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와 확인의 연속이다. 작품 한 점의 제작 연도와 제목,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씩 자료를 추적하는 일도 흔하다.

그럼에도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미술관 전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시간을 내어 찾아온 관람객의 기대를 저버리는 셈이고, 무엇보다 그 전시를 통해 한국미술사에 한 좌표가 새겨질 작가에게도 면목이 없다. 한 사람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기꺼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컬렉팅을 정의한다면.

좋은 컬렉팅은 결국 '자기 눈으로 보는 일'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값이 오른다는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컬렉션에 정작 자기 자신이 없게 된다. 한집에서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그림인지가 더 중요하다.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는데 반려그림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일본에서는 어느 가정집을 가더라도 그림 한 점쯤은 자연스럽게 걸려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풍수나 이름값, 투자가치로 미술에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시작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림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작품의 연혁과 형식,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컬렉팅이 곧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조와 화풍에 끌리는지 발견하는 일이다. 미술사를 폭넓게 익히며 자신의 취향을 찾고, 그 눈으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작가와 분야를 먼저 발견하는 컬렉터들이 결국 미술사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유행보다 반 발 앞서 보

한국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배원정 학예연구사. 그는 전시와 연구를 통해 한국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조명해왔다.

는 안목도 거기서 나온다. 무엇보다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오랜 시간 한국미술사를 연구해왔다. 결국 좋은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삶과 예술이 일치하는 작품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데 더 신경 쓰기도 한다. 예술도 다르지 않다. 진짜 좋은 예술을 하는 사람은 삶과 작품이 자연스럽게 포개진다. 그럴 때 관객은 기만당했다는 느낌 없이 작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성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삶과 작품이 맞는 지점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미술은 작품으로 말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근현대미술은 작가라는 존재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 작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해도 삶의 태도와 행동이 함께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세상을 떠난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읽힌다.

관객도 컬렉터도 더는 신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짜를 원한다. 그리고 진정성은 삶과 작품이 다르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운이 좋은 학예사다. 장욱진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이대원은 누구보다 명민했지만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여러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기질을 지녔지만 삶과 예술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의 회고전을 준비하며 한 번도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한 인간이자 예술가인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다. 결국 작품은 작가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라는 사실을 나는 이 두 사람에게서 다시 배우고 있다.

최근 가장 몰입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올해 8월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이대원 회고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대원은 장욱진, 박수근, 김환기와 함께 한

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다. 화가이자 교육자였고, 한국 최초의 화랑인 반도화랑을 운영하며 박수근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했다. 홍익대학교 총장과 예술원 회장을 지냈으며, '민간 외교관'이라 불릴 만큼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이력에 비해 그의 작품 세계를 미술사적으로 온전히 조명한 전시는 지금까지 없었다.

내가 가장 집중했던 질문은 하나였다. '색색의 점들이 화면 가득 흩날리는 듯한 독특한 색채는 어디에서 왔을까.' 흔히 타고난 낙천성으로 설명되곤 했지만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나전칠기의 영롱한 빛과 자수의 결처럼 한국 전통공예에서 길어 올린 미감이 그의 조형 언어 속에 차곡 차곡 쌓여 있었다.

이번 전시는 그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자리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도 삶과 예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던 사람, 자기 절제와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했던 한 인간의 작품 세계를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보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계획과 학예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 하나다. 전통과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미술의 끊긴 맥을 다시 잇는 일이다. 한국화와 서예를 미술사의 중심에서 다시 읽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 미술이 어디에서 출발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연결 과정을 글과 전시로 꾸준히 보여주고 싶다.

후배들에게는 직업의 이름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고민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최고의 직장이라는 정답도, 안정된 진로라는 공식도 사라진 시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아는 것이다.

기존의 학예사라는 길을 걸어도 좋고,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들어도 좋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오래, 멀리 간다. **F**

좋은 예술을 하는 사람은 삶과 작품이 자연스럽게 포개진다. 진정성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삶과 작품이 맞는 지점에서 나온다.



정승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법학 석사, 법학 박사) 졸업 후 2011년 공익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과 복합문화공간인 유중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